

학부모-자녀 간 관계회복 적극 나서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북상담학회·전북지역아동센터 4개 연합회와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전문 상담기관과 손잡고 학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5층 회의실에서 전북상담학회, 도내 지역아동센터 4개 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리정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부모-자녀 간 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최혜란 전북상담학회장, 최영순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협의회장, 김해영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북지부회장, 이월순 전북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북연대회장, 채현주 전북14개시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상담 지원프로그램에 전문상담기관 상담사를 연계해 부모-자녀 간 관계를 개선하고,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최혜란 회장은 "최근 자녀양육에 대해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

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세밀하고 촘촘한 학부모 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순 회장은 "전북교육청과의 협약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미중용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문상담기관과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협약이 학부모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가정의 인성교육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달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전북교육청과 전북상담학회, 도내 지역아동센터 4개 연합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상호 협력 발전 협약(MOU) 체결식이 열렸다.

대규모 행사 사전 안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청 주관 행사 대상... 경찰서·소방서와 합동 점검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청 주관 대규모 행사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생 1,000명 이상이 참여하거나, 전시장 부스를 10개 이상 설치하는 행사는 사전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며, 교육감이나 기관에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행사도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관리부서는 행사 개최 1~2일 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분야별 점검을 진행, 점검 결과 미비 사항은 주회 부서를 통해 신속하게 보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 연락망·안전요원 역할 및 교육 등 관리 분야, 전기·소방·방송·가스·무대 구조물 등 시설 분야, 행사장 주변 교통 및 밀집 인과 사고 위험 요소 등 교

통·질서 분야, 응급상황 구조·위험물·피난대피로 확보 등 구급·소방 분야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방지하고자 한다"면서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더 철저하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소규모 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운영

체험학습·행사 등 공동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올해 4개팀 13개 유치원에 총 13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울타리유치원은 중심 유치원 1개원과 협력 유치원 2~3개 원이 체험학습, 교육활동, 행사 등을 공동 운영하는다.

이는 출생아 수 급감에 따른 유치원 충원을 하라 및 소인수 학급 증가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면서 소규모 유치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수요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취지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올해 4개팀 13개 유치원에 총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된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내·외부 환경 조성 및 리모델링,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로 활용된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통학차량 지원, 특색있는 맞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거점유치원 및 협력유치원 간 시설 및 프로그램 공동 활용 등으로도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29일 13개 유치원 담당교사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컨벤션홀에서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운영 사전협의회를 개

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소규모 유치원 공동 교육과정 사례 발표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운영 실무추진단과 함께 하는 환경 여건 개선 사업 안내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운영 운영방안 협의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운영 지원의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운영 안내 등이 이뤄졌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운영은 소규모 유치원이 78% 달하는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소규모 유치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유아가 포대와 상호작용하며 놀이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안전사고 없는 대동제 준비 '만전'

8~10일 행사 앞두고 경찰·소방 등과 협조체계 구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8~10일 열리는 개교 77주년 대동제를 앞두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지난달 30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개교 77주년 대동제 축제'에 따른 행사 안전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덕진경찰서와 덕진소

방서 등 유관기관 실무진들과 대학 축제 관할 부서인 학생지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예방 대책, 안전관리 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에 대한 사항 등을 꼼꼼히 검토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덕진경찰서에서는 대동제 기간 동안 부스를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소방서에서도 응급차량 배치와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부스를 설치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김종석 학생처장은 "학생들과 지역민들이 안전한 축제를 즐기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축제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미비한 점들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입주기업 누리꿈 전북특구 전략기술 사업화 선정

우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주)누리꿈(대표 강주석)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전북특구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또는 산학연 연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및 테크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연계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테크 스타트업 사업화 분야에 이름을 올린 (주)누리꿈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바이오 촉매 최적화 기술'을 통한 식용곤충 유래 항노화 소재 대량생산 시스템 및 반려동물용 기능성 간식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2023년 설립된 (주)누리꿈은 전주시가 출연한 농생명 바이오 연구기관인 (재)농생명소재연구원의 귀뚜라미 발효기술을 지분으로 출자한 연구소 기업으로,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가족회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주)누리꿈과 우석대학교 김준형(식품영양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식용 귀뚜라미 원료의 항산화·항노화 기능성을 규명, 연구 결과를 한국식품과학회 학회지에 소개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변호사시험 5명 합격자 배출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학부장 정태종)는 제13회 변호사시험에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학부를 졸업한 김하은(13학번) 학생을 비롯한 김명훈·전지현(14학번), 박치원(16학번), 이해수(17학번) 학생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공공인재학부는 지난달 29일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초청, 학부생 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합격자들은 공공인재학부 동문 법조인 네트워크 구성과 법조계 진출을 희망하는 후배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 기부, 후배들을 위한 학부 운영 프로그램 참여 등 적극적 지원 등을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베트남 유학생 대상 '베트남의 날' 기념 행사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본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해 '베트남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기전대학에 약 500여명의 베트남 유학생이 학부 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에 재학 중이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베트남 전통 여름 간식 '체'를 준비해 제공했다. 이 외에도 캐리커처 프로그램, 나만의 향수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유학생들이 익숙한 고향의 맛을 느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 유학생회 회장 응웬 타인 선(호델외식조리과 2년) 학생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베트남에 자주 못 가서 항상 고향이 그리웠는데, 오랜만에 고향의 맛을 볼 수 있어 행복하고 감동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5월 5일, 신나게 뛰어보자"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풍성'

전북자치도교육청 주관 어린이날 행사 첫 개최 놀이·인성·미래·진로마당 등 61개 부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이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고, 놀이활동을 통해 건강한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서 교육감의 의지가 담겼다.

이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40분부터 전북교육청 앞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보자'를 주제로 '2024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놀이마당 △인성마당 △미래마당 △진로마당 등 4개 영역에서 총 61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놀이마당에서는 비석치기, 산가지놀이, 활쏘기, 보드게임, 순계기 등 20개 놀이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인성마당에서는 휴먼예방 놀이터, 우리집 가훈 글꼴쓰기, 부모를 위한 타로심리 상담 등 12개 프로그

램을 선보인다.

미래마당에서는 퍼리부는 로봇, 드론 축구, 프로그래밍 로봇 배틀 등 에듀테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19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진로마당에서는 AI 차선 인식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제어, K-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호기심 광장 '미술 공연', 낭독극 '마당을 나온 암탉', 퍼레이드 '박물관을 살아있다' 등 전문가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제10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2024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다양한 놀이를 함께 배우고 체험하면서 행복하고 빛나는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달 30일 '아침운동 신명나게(아신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주북초등학교를 방문한 서거석 교육감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침운동하며 하루 시작해요'

서거석 교육감, '아신나' 프로그램 운영 전주북초 방문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아침운동 신명나게(아신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주북초등학교(교장 노봉숙)를 방문,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아신나'를 4월부터 도내 205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아침 체육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1교시 시작 전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활기차고 신나게 하루를 시작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전주북초는 '부지RUN'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8시30분부터 20분 동안 아신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생 누구나 걷기&달리기

할 수 있으며, 체육관에서는 신청 학생들이 뉴스포츠(넷볼)·피구·건강 줄넘기를 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을 달렸다. 이어 체육관에서 뉴스포츠(넷볼)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아침운동이 끝난 뒤에는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교육에 바라는 점을 청취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아침부터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를 깨우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라면서 "아신나 활동으로 건강한 체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대학 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연계 상호협력

전주대 인권센터, 원산경찰서 여형계와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인권센터는 전주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인권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이호준 인권센터장과 강미경 여성청소년과장을 포함 등 양 기관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 내 스토킹·교제 폭력·성폭력 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호준 인권센터장은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 증진과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대학 내 인권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우리 대학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인권센터는 2023년 전

북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 지역 사회에 인권 친화적인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인권 문화 축제, 인권 영화제, 인권 현장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와 함께 제1회 전라권 네트워크 성장훈련을 실시했다. /장은성 기자